

Mary Douglas
sympathetic magic
holiness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구자용(총신대)

1. 들어가는 말

신학적 동물학이란 일반 동물학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낯선 개념이다. 이것이 일반 동물학과 구별되는 점은 아마도 그 연구 대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학적 동물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신과 인간, 그리고 동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와 동물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듯 동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동물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관계성은 또 어떻게 설명되는가? 슈로어(S. Schroer)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관계성이 한 면만 강조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일면 왜곡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

고, 동물이 단순히 인간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¹⁾ 이것은 특히 동물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리고 동물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수한 관계성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그 관계성은 먼저 하나님이 '동물의 주'라는 사상이다. 구약에서 야웨 하나님은 인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을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는 그들의 주라는 사상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과 동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뿐 아니라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상이다. 종종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동물은 인간이 차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 간 바로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게다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동물이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이사야의 미래에 대한 환상은 확실히 사람과 동물의 관계성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는 이미 제 궤도에 올랐고, 상당한 정도의 연구 결과물이 나와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2000년대에 들어 가톨릭을 필두로 비로소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부설기관인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³⁾의 활동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연구와 계몽이 진행되고 있다.⁴⁾ 특히 몇 해 전의 구제역 사태는 이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이란 주제로 개최했던 생태신학세미나는 중요한 신학사상과 동물윤리에 대한 각성을 심어 주었다. 이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간 외에 자연도 구원을 열망하는 피조물의 한 부분임을 고백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욕구충족만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거나 자연의 고유한 존엄성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 '자연을 착취하거나 자연의 고유한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깃든 평화를 깨뜨리는 비신앙적 행위라'는 주장, 그리고 '창조설화의 식물과 동물, 인간의 창조 묘사는 생태계를 먹이사슬이 아닌 공존의 창조세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신선하면서도 매우 적절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백운철도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경종을 울리며, 동물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571).

- 1) Silvia Schroer, *Die Tiere in der Bibel: Eine kulturgeschichtliche Reise* (Freiburg in Breisgau/Basel/Wien: Herder, 2010), 9-10. "기독교의 전통은 그것의 일방적인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모든 동물적 존재들(Animalischen)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동물 세계를 종종 소홀히 하였다. 신적 영역으로부터 그것들은 완전히 배제되어야만 했다. (...) 동물의 세계와 신학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창세기 1장 28절의 (동물에게 주어진 인간에의) 종속명령(Unterwerfungsbefehl)이 다른 성서 본문의 문맥과 괴리된 채 문자적으로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동물세계(Fauna)가 인류에게 해금된 사냥감(Freiwild)이 되어 버렸으므로, 동물이 서양의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배권의 단순한 대상으로서 착취당하고 멸종되고 말았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화의 대상, (인간 욕망의) 만족의 대상 그리고 우화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재난 수준의 발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작업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성서의 전통에 대한 회고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한 면 한 면을 넘길 때마다 동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저 첫째(구약) 책에 대한 회고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Peter Riede, "Menschen und Welt in der Sicht des Alten Testaments: Am Beispiel von Psalm 104", Ders., *Schöpfung und Lebenswelt: Studien zur Theologie und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arburger Theologische Studien 106;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9), 101-103.
- 2) 특별히 주목할 만한 연구의 결과물은 Rainer Hagencord(ed.), *Wenn sich Tiere in der Theologie tummeln: Ansätze einer theologischen Zoologie* (Regensburg: Pustet, 2010); Rainer

Hagencord, *Gott und die Tiere: Ein Perspektivenwechsel* (Regensburg: Pustet, 2007); Silvia Schroer, *뫼글 외 Institut für Theologische Zoologie(신학적 동물학 연구소)의 자료*(www.theologische-zoologie.de)를 참고하라. 또한 영어권의 자료로는 John Austin Baker, "Old Testament Attitudes to Nature", Andrew Linzey/Tom Regan(eds.), *Animals and Christianity: A Book of Readings* (New York: Crossroad, 1988); R. Hyland, *God's Covenant with Animals: A Biblical Basis for the Humane Treatment of All Creatures* (New York: Lantern, 2000) 등을 참고하라.

- 3) <http://greenchrist.tistory.com>.
- 4) 이은우,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의 수사적 구도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0-34.
- 5) 이에 관해, 유미호,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 2011 지구의 날 기념,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생태신학세미나'를 마치며", <http://cafe.daum.net/econanum/> (접근일: 2015년 4월 2일)을 참고하라.

사실 성서는 하느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이야기이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인간만을 위한 기획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개입된 피조물 전체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성서가 인간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창조계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와 그 역할 때문이다. 아울러 하느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마침내 사람이 되시어 오셨다는 그 근본적인 구도 안에서는 인간이 창조와 구원의 정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창조관과 구원관이 기실 자연을 과소평가하거나 착취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⁶⁾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것은 신학적 동물학이 동물 보호나 동물에 대해 취해야 할 인간의 윤리적 관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구약의 창조신학과 지혜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동물에 대한 보호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태도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창조세계 내에서 동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는 구약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동물에 관계된 본문들에 대해 성서신학적인 면에서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구약성서에서 동물과 관련되는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성을 서술하는 곳과 또한 동물이 인간과 가지는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피되, 주로 본문 분석에 치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상징적, 혹은 문학적인 표현, 가령 비유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추후 연구과제로서 배제될 것이다. 특히 동물의 주로서의 야웨 하나님에 대한 서술과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dominium terrae)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구약의 서술들

에 포함되어 발전했는가라는 면도 부분적으로 고려할 것이다.⁷⁾ 각 본문들에 대한 분석 이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신학적 동물학에 대해서 서술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할 부분들을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주요하게 다룰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인간과 더불어 지음을 받은 동물로, 창세기 1장 24-30절; 2장 19절; 둘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동물로, 창 6장 19-22절; 9장 1-17절; 시편 104편 10-30절; 시편 50편 10f절; 147편 9절; 욥기 38장 39ff절; 셋째, 인간의 경쟁 상대로서의 동물로, 이사야 13장 20-22절; 23장 13절; 34장 8-17절; 예레미야 50장 39절; 호세아 2장 14절; 넷째,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동물로, 욥기 12장 7절; 잠언 6장 6-8절; 이사야 1장 3절; 예레미야 8장 7절이며, 이 본문들을 토대로 신학적 동물학의 큰 틀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동물에 대한 자리매김, 즉 인간과의 관계성 하에서의 동물의 위치를 중심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인간과 더불어 지음을 받은 동물

동물이 창조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은 잘 알려진 사람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두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24-30절과 2장 19절에 나타나는 두 서술은 매우 상이한 창조의 의도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 창세기 1장 24-30절

창세기 1장에서 동물 창조에 대한 설명은 땅 위에 식물이 창조되는

6) 백운철, "환경신학과 성서", 『가톨릭 신학과 사상』 25호 (1998), 9.

7) 이 부분은 이 논문의 주된 논지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간단하게만 언급될 것이다.

것에 대한 서술의 한편과 사람이 창조되는 것에 대한 서술의 다른 한편에 비교해 볼만하다. 먼저 동물 창조에 대한 서술 구조를 보면, 24절에 ‘하나님이 말하였다’(אֱלֹהִים יָמַר : 바요메르 엘로힘)라는 도입 형식과 이어서 땅에게 주어지는 의지의 사역 명령(Hiph. Juss.)으로 구성된다.

땅은 내기를! 살아 숨 쉬는 것을, 그 종류대로(אֲנִי יִצְוֶה אֶת הָאָרֶץ לָבוֹא בְּמִינֵיהֶן : 토체 하아레츠 네페쉬 하야 리미나흐)!

땅에 대한 명령인 ‘내라’(אֲנִי יִצְוֶה 토체)는 ‘살아 숨 쉬는 것’(אֲנִי יִצְוֶה 네페쉬 하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반복 설명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בָּאֵיךְ) 바여히-켄)란 표현으로 마무리된다. 25절의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וַיַּעַשׂ) 바야아스)는 עָשָׂה(아짜/만들다) 동사가 사용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반복 서술로, 창세기 1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 기록(Wortbericht)과 직접적인 행위 기록(Tatbericht)이 나열되는 병행 구조와 일치한다.⁸⁾ 식물의 창조도 동일한 구조로 서술된다. 11절의 ‘하나님이 말하였다’라는 도입 형식 후에 의지의 사역형(Hiph. Juss.)으로 주어진 명령인 ‘푸르른 것을 내라’(אֲנִי יִצְוֶה 타드쉐)와 마지막의 ‘그렇게 되었다’(בָּאֵיךְ) 바여히-켄), 그리고 12절에는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 기록은 아니지만, 실제로 진행된 생성의 행위가 ‘그리고 내었다’(וַיִּצְוֶה) 바토체)로 서술된다. 눈에 띄는 것은 동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의 의지 사역 명령에 사용된 동사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동물과 식물은 모두 땅이 나게 한 존재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들

8) 이에 관해, 윤희,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 『구약논단』 52집 (2013년 6월), 117-143과 Werner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von Genesis 1,1-2,4a und 2,4b-3,24* (WMANT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7을 참고하라.

다’(עָשָׂה 아사)는 행위가 동물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둘 사이를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26절 이하의 사람 창조에 대한 서술 구조 역시도 동물과 식물 창조에 대한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26절은 도입 형식 이후에 독특한 1인칭 복수 형태의 ‘우리가 만들자’(נַעֲשֶׂה 나아쎬)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27절은 ‘그리고 그가 창조하였다’(וַיִּבְרָא) 바이브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행위 기록을 서술하고 있다. 동물 창조에 대한 서술과 비교할 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⁹⁾과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 즉 ‘다스림’(26b절, ~וּלְעֹלְמָד 이르두 버~)이 언급된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 ‘그들’(즉,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28a절, וַיְבָרֵךְ) 바여바레크)는 점이다. 특히 복 주심에 대한 언급 이후 사람에게 주어진 다섯 개의 명령, 즉 ‘번성하라’(וַיִּפְרֹא) 퍼루), ‘증가하라’(וַיִּרְבּוּ) 러부), ‘땅을 가득 채워라’(וַיִּמְלֵאוּ אֶת הָאָרֶץ) 밀르우 에트-하아레츠), ‘그것을 정복하라’(וַיִּכְבְּשׁוּ) 키브슈하), ‘다스리라’(וַיִּרְדּוּ) 러두)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¹⁰⁾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 사이에 설정된 관계성은 선행하는 단락과 비교할 때 창세기 1장 29-30절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주어진 먹거리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¹¹⁾ 29절의 첫 머리

9)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뵘레(Jakob Wöhrle)에 따르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널리 퍼져있는 왕의 이데올로기(Königsideologie)에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며,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9장 6절과 연관하여, 사람에게 신적인 무엇이 있어서, 다른 존재들, 특히 동물과 구분되는 면이 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관해, Jakob Wöhrle,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77-178을 참고하라.

10) 이 다섯 개의 명령 중에서 마지막 두 개의 명령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에 대해서 ‘종속적인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명령은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Königsideologie)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11)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여기서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먹을 것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음을 지적한다. 이 관점은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하게 만든다. 이에 관해, Claus Westermann, *Genesis: 1. Teilband Genesis 1-11* (BK I/1; Neukirchen-Vluyn:

는 앞서 살핀 단락들의 첫 시작 부분과 동일하게 도입 형식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아마도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서술인 1장 26-28절과 구분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에게'(עַלְכֶם 라켄), 즉 사람에게, 그 다음에 새와 기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כָּל־חַיַּת הָאָרֶץ 리콜-하야트 하아레츠)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특히 '내가 주다'(נָתַתִּי 나타티)라는 동사가 두 절 모두에 동일하게 사용되며, 사람과 동물에게 각각 주어지는 '먹을 것'에 대해 종류의 차이, 즉 '씨 맺는 식물(עֵשֶׂב הָרִעַן 에쉐브 조레아 자라)과 씨 맺는 과실수(עֵץ הָרִעַן פְּרִיָּוֹן אֲשֶׁר־בוֹ פְּרִיָּוֹן 하에츠 아쉐르-보 페리-에츠 조레아 자라)의 한편은 사람에게, 모든 푸른 풀(כָּל־קֶשֶׁת קוֹל-에레크 에세브)의 다른 한편은 동물에게'란 차이 외에 질적인 차이를 말할 수 없다면, 이 단락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평하게 혹은 각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받고 있음을 서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사람과 동물의 관계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창조의 모습은 1장과는 사뭇 다르다. 2장에서는 확실히 사람이 창조의 중심에 서 있으나, 사람 창조 서술에 더불어 언급되는 동물 창조에 대한 설명에도 확실히 주목할 만한 면이 있다. 7절에 있는 사람 창조에 대한 묘사와 19절에 있는 동물 창조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 보면, 둘 모두에 יָצַח (야차르/짓다) 동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동물과 사람을 짓는 재료가 동일하게 '땅으로부터'(מִן־הָאָרֶץ)

Neukirchener Verlag, 21976), 219를 참고하라. 한편 한동구는 29-30절이 선행하는 26-28절과 대립되고 모순됨을 지적하며, 인간에게 동물이 음식으로 허락되지 않았음을 통해 인간에게 부여된 동물 세계에 대한 지배와 정복의 제한 그리고 더 나아가 피조물 사이의 평화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이에 관해 한동구, 「창세기 해석」(성남: 도서출판 이마고데이, 2003), 103, 116을 참고하라.

민-하야다마)의 무엇이다.¹²⁾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창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를 표시하는 단어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7b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만들어진 사람을 '살아 숨쉬는 존재'(חַיִּים נְשָׁמִים 네페쉬 하야)로 기록하는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사람에게 의해 이름이 부여된 동물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¹³⁾

특히 19절에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3장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볼 때 독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¹⁴⁾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지배권을 소유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12) 물론 사람의 창조에는 특별한 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지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7절에는 '땅으로부터' 앞에 אָרֶץ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크게 두 부분(אָרֶץ와 מַעַל)으로 구별되는 사람 창조의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은 동물의 창조와 구별되는 특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Werner H. Schmidt, *원글*, 199: "Wenn nach verschiedenen altorientalischen Vorstellungen der Mensch jeweils ähnlich aus irdischen und göttlichen Stoff gebildet wird, so will solche mythische Redeweise die besondere Stellung des Menschen zwischen Gott und Welt beschreiben: Die Heimat des Menschen ist nicht die Erde allein, der Mensch ist vielmehr irdisch und göttlich zugleich und steht darum zwischen beidem,"을 참고하라. 이에 반해 베스터만은 이것이 단순히 서사기법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Claus Westermann, *원글*, 310.

13) 폴라(Thomas Pola)는 식물과 달리 인간과 동물만이 움직일 수 있고, 생명을 갖은 존재로 보며, 그 둘이 동일한 표현을 지닌 것에 의미를 둔다. 이에 관해 Thomas Pola, "Was ist »Leben« im Alten Testament", *ZAW 116* (2004), 251을 참고하라. 또한 슈로어(Silvia Schroer)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스와 서양의 전통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강조된다. 즉 사람은 동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성서적 전통은 그러한 견해에서 멀다. 거기서 동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되며, 더구나 인간의 옆에 서있는 생명체로서 인정된다. 땅의 동물과 사람은 첫 창조이야기, 즉 제사장적 창조이야기에 따르면 같은 날, 즉 6일째 창조의 날에 창조되었다. 사람과 동물은 동일한 땅의 흙으로 빚어졌고, 그리고 죽음의 운명을 나누어 지녔다. 이것은 주전 3세기에 전도서가 다른 주장들, 즉 아마도 그 시대의 헬레니즘으로 각인된 주변 세계의 철학적 논쟁들에 대항하여 견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이 가축의 운명과 동일하다. 하나의 운명을 그들 모두 가졌다. 이것이 죽는 것처럼 저것 역시도 죽는다. 그리고 동일한 생명의 혼을 그들 모두 가졌다. 사람이 가축 앞에서 우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동일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먼지로부터 왔고, 그들 모두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 누가 알겠는가, 혹은 사람의 생명의 혼이 위로 상승하고, 가축의 생명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Silvia Schroer, *원글*, 13.

14)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20절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물론 이 논문의 논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Christoph Dohmen, *Schöpfung und Tod: Die Entfaltung theologischer und anthropologischer Konzeptionen in Gen 2/3* (SBB 35; Stuttgart: Katholische Bibelwerk GmbH, 1996), 223-224를 참고하라.

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간의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드러내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¹⁵⁾ 이것은 2장 18-21절에 연속되는 하나님과 아담의 행위 묘사를 통해 설명된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위해 ‘돕는 배필’(עֵזְרָאֵת אִשָּׁה 에제르 커네그도)¹⁶⁾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19절에서 동물을 짓고(וַיִּבְרָא בַּיּוֹמַיְכִי 바이체르),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려고 사람에게 이 끌어 가는(וַיִּבְרָא 바이야베) 것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되 동물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진 ‘여자’(אִשָּׁה 잇샤)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함(2:23b; 3:20a)으로써 드디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¹⁷⁾

15) 물론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확실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대한 성취, 즉 인간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지배권의 성취의 한 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도멘의 견해를 참고하라. Christoph Dohmen, *위글*, 226: "... der Aussage von 2,29-20 statt; da die Erschaffung der Tiere in Gen 1,20-25 bereits mitgeteilt wird, muß in 2,19-20 die Betonung darauf gelegt werden, daß die Tiere dem Menschen zur Benennung zugeführt werden. Daraus folgt, daß 2,19-20 in dieser Kombination gelesen werden als kurze Aufnahme des Themas Erschaffung der Tiere, um dann beispielhaft zu zeigen, wie der erste Mensch die Benennung der Tiere vollzieht und damit auch den Schöpfungsauftrag von Gen 1,26-28 anschaulich ausführt."을 참고하라.

16) 히브리어 עֵזְרָאֵת אִשָּׁה는 직역하면, "그의 맞은편에 서있는 상대자로서의 혹은 그에게 잘 부합하는/맞는 도움, 협력자, 보호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 Donner(ed.) (Heidelberg/Dordrecht/London/New York: Springer, 182013), 778; 948을 참고하라.

17) 이름 부여의 행위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는 전체적인 계획과 실행의 한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름 부여를 통해 가능되는 인간과 동물의 친밀성은 동물이 인간의 돕는 배필로 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배필의 수준에 이르는 친밀감은 역시 이름 부여의 행위로도 증명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있다. 이에 관해 룩스가 제시하는 이름 부여에 대한 의미는 참고할만하다. "창세기 2장 19-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를 인도하시고 인간이 어떤 이름을 그것들에게 주는지를 보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에게 인간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종결된다. 인간은 이 세계를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파악하고 형성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권위를 위임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사명을 준 의도는 그에게 적합한 도움(역자 주: 돕는 배필)을 주려는 것이었다(창 2:18). 이 모티브 뒤에 숨겨져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그와 더불어 창조된 피조물을 자신의 대화 상대자들로 삼

창세기 2장이 보여 주는 동물 창조는 비록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거기에 동물이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관계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름 부여’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이 확실히 사람에게 매우 친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비록 ‘돕는 배필’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종속된 존재로 지어진 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동물

인간과 더불어 지어진 동물은 하나님께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의 표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도 하나님이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그 돌봄은 첫째는 인간과 동등하게, 둘째는 인간을 통해 그리고 셋째는 인간과는 별개로 하나님과 동물 사이의 관계성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창세기 6장 19-22절; 9장 1-7, 8-17절

창세기 6장 19-22절은 온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의 진행 과정에서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한 돌봄을 받고 있음을 알려준다.¹⁸⁾ 노아가 사람을 대표하듯 모든 동물의 ‘둘’(אִשָּׁה 쉘나임)이 노

을 때에 비로소 그 피조물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동물 사이에서는 그에게 맞는 대화 상대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그 여자를 만들었다(창 2:21-22). 여기서 이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이질성에 대한 경향이 분명해진다. 그 둘의 관계에는 일방적인 편차가 있다.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 어떤 대화 상대자도 발견하지 못한다. 언어 수준에서의 상호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자신의 함께 지어진 피조물을 이름 없는 그러므로 역시 권리도 없는 부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되 새로 태어난 아가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어머니와 같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루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언어의 대가, 백성의 지도자, 삶의 원천』 (구자용 옮김), (고양: 한국학술정보[주], 2012), 184. 원제는 Rüdiger Lux, *Die Weisen Israels: Meister der Sprache - Lehrer des Volkes - Quelle des Leben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59-60.

18) Claus Westermann, *위글*, 569.

아와 함께 생존하도록(19b절, רָחַם לְהַחִיית אִתְּךָ 리하하요트 일타크) 방주에 들여보내졌다. 특히 21절의 방주 안에서 소용될 양식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동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면에서 확실히 주목할 만하다.

21a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에서 너를 위해 취하고(קָחָה לָּךְ 카흐-러카)

네 옆에 저장하여야 한다(תָּצִיב לְפָנֶיךָ 아싸프타 엘레카).

21b 그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וְהָיָה לָּךְ וּלְאֹכְלֵי לָּךְ 버하야 러카 버라헬 러오클라).

양식에 대한 준비와 저장은 사람이 담당할 몫이나, 그 양식은 결국 ‘너와 그들’, 즉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방주에 함께 들여보내진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은, 특히 사람을 통해 동물에게 ‘먹을 것’을 배려하는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9장 1-7절에서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절의 복을 주심과 그 내용에 대한 표현이 1장 28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¹⁹⁾ 이것을 단순히 1장과 같은 경향성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만, 몇 가지 면에서 1장과 의 연관성이 관찰된다. 먼저 2절의 동물 위에 급작스럽게 임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손에 주어짐에 대한 표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וּמִוֹרָאֵיכֶם וּמִחֲתָמֵי יְהוָה עַל כָּל־חַיַּית הָאָרֶץ וְעַל כָּל־עוֹף הַשָּׁמַיִם

(우모라야켄 버히트켄 이호에 알 콜-하야트 하아레츠 버알 콜-오프 하사마임)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땅의 모든 생물 위에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새

19) 두 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1 וַיְבָרֶךְ אֱלֹהִים אֶת־נֶחֱשֶׁת וְאֶת־בְּנֵי וַיֹּאמֶר לָהֶם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1:28a וַיְבָרֶךְ אֹתָם אֱלֹהִים וַיֹּאמֶר לָהֶם אֱלֹהִים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וּבְכֶשֶׂה

들 위에 생겨날 것이다.

בְּכֹל אֲשֶׁר תִּרְמֹשׁ הָאָדָמָה וּבְכֹל־דְּגַי הַיָּם בְּיָדְכֶם נָתַנִּי

(버콜 아셰르 티르모쉬 하아다마 우버콜-디게 하얌 베예드켄 니타누)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더불어 그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본문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하는 대상이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새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와 전치사의 사용(נָתַנִּי...וּבְ...וְעַל...=...וְעַל...וְעַל...)과 더불어, 문장의 중앙에 위치한, 의미 단위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액센트인 아트나흐(Atnach)에 주의 기울여 볼 때 2절 전체는 1장 26절의 인간에게 주어진 지배권을 회상시킨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인간의 다스림의 대상이 여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로 연결된다. 3절은 그 안에 포함된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 난해하다.

כָּל־רִמָּשׁ אֲשֶׁר הוּא־אִחִי לָכֶם וְהָיָה לְאֹכְלָהּ כְּיָרֵךְ עֵשֶׂב נָתַתִּי לָכֶם אֶת־כֹּל

(콜-레메쓰 아셰르 후-하이 라켄 이호에 러오클라 커예레크 예셰브 나타티 라켄 에트-콜)

살아있는 모든 기는 것이 너희에게 먹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살아있는 ‘모든 기는 것’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푸른 풀처럼’(כְּיָרֵךְ עֵשֶׂב) 커예레크 예셰브)은 선행하는 먹을 것이 된다는 것에 연결되는지, 아니면 뒤따라오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에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한 모호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푸른 풀’(עֵשֶׂב) 예레크 예셰브)이 애초에 1장 30

발-여슈분)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물과 관련된 창조주의 이미지가 물과 관련된 창조의 행위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 물의 이미지는 특별히 10절 이하에서 동물을 돌보는 야웨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3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관사가 붙은 분사 구문인 ‘골짜기들에 샘을 보내는 그분’(מַלְאֵם בְּקִלְעֵי הַבְּרִיחַ 하머살레아흐 마으야님 반너할림)은 그러므로 ‘물을 통제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 거기서 분사 구문이 여러 동사적 표현들과 연결되어 창조적 행위들로 펼쳐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동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들로 묘사된다. 즉 골짜기에서 솟아난 그 ‘샘’(מַלְאֵם 마으야님)을 산 사이에 흐르게 하자(10절, הַרִים בֵּין הַבְּרִיחַ 하림 예할레쿰), 그 물을 들의 모든 살아있는 것(כָּל חַיֵּי הָאָרֶץ 콜-하예토 싸다이)들이 마시고, 그 물로 들나귀가 목마름을 해갈한다. 즉 하나님이 보내는 물은 동물이 마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물의 공급원이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역시 분사 구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묘사인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심’(מַשְׁקֵה הַרִים מֵעַל יוֹתֵיבו 마쉬케 하림 메알리요타브)²⁴⁾은, 시인이 직접 화법으로 표현한 ‘당신의 행위에 대한 결실로부터’(מִפְּרִי מַעֲשֵׂיךָ 밋페리 마아세카) 주어진 상태인 ‘땅이 만족하다’로 연결된다. 이 ‘땅이 만족하다’라는 개념은 다시 14절 이하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적용되는 양식(14-15절)과 거처(16-18절) 그리고 시간(19-23절)의 세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서술된다.²⁵⁾ 27절 이하를 보면, 비단 공급뿐 아니라 취하심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²⁶⁾ 그러므로

24) מַשְׁקֵה는 מַשְׁקֵה의 히브리어 분사로 ‘술 관원’이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마치 술잔을 채우듯 산을 물로 적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해, Wilhelm Gesenius, *유폴*, 761, 1407을 참고하라.

25) Peter Riede, *유폴*, 109-110, 또한 구자용, “죽음-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실존: 구약 성서적 창조와 지혜 전승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9집 (2013년 9월), 366도 참고하라.

26) 24절의 ‘주께서 지으신 것들’(מַעֲשֵׂי יְהוָה), 27절의 ‘이것들은 다’(כָּל), 28절에 두 번 언급된 ‘그들’(전치사와 결합된 형태로 הֵנּוּ, 즉 ‘그들에게’; 동사에 포함된 주어로서), 29절에 세 번 언급된 ‘그들’(명사에 붙은 소유 접

시편 104편은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돌보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돌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시편 50편 10-11절; 147편 9절; 욥기 38장 39f절

선행하는 본문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인 동물과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해, 시편 50편 10-11절과 시편 147편 9절 그리고 욥기 38장 39절 이하의 사람과는 별개로 동물이 하나님에게 귀속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먼저 시편 50편 10-11절을 보면, ‘삼림의 모든 짐승’(כָּל חַיֵּי הַיַּעַר 콜-하예토-야아르)과 ‘하나님의 산의 동물’(בְּהֵמוֹת בְּהַרְיָאֵל 베헤모트 베헤르레-엘)²⁷⁾이 ‘내게’(לִי 리), 즉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노래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산들의 모든 새’(כָּל עוֹף הַרִים 콜-오프 하림)를 알며, ‘들의 짐승/곤충’(כָּל זֶרֶם הָאָרֶץ 지즈 싸다이)²⁸⁾이 그와 함께 있음(יְמִיַם 임마디)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동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시편 147편 9절은 야웨가 들짐승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까마귀의 새끼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분임을 분사 구문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동물을 먹이고 기르는 야웨의

미사로서의 מַלְאֵם; 동사에 포함된 주어로서) 그리고 30절에 언급된 ‘그들’(동사에 포함된 주어로서)은 모두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사람과 동물을 함께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리데(Peter Riede)는 특히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이 모두 동일한 운명공동체이며, 사람에게와는 왕과 같은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것을 시편 104편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Peter Riede, *유폴*, 114를 보라.

27) 맛소라 본문이 갖고 있는 כָּל בְּהֵמוֹת בְּהַרְיָאֵל은 칠십인역과 시리아어 역본이 제시하는 이문인 ‘산들의 짐승들과 소들’(ἐν τοῖς ὄρεσιν καὶ βόες)로 읽어야 하는가? 히브리어 בְּהֵמוֹת은 ‘소’라는 의미 또는 ‘일천’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일천의 산들’ 혹은 ‘소의 산들’로 번역할 수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크라우스의 제안과 시 36:(우리말 번역은 36:6)을 따라 ‘하나님의 산들’로 수정하여 읽고자 한다. 이에 관해, Hans-Joachim Kraus, *Psalmen: 1. Teilband* (BK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1), 370-371을 참고하라.

28) 시편 80편 14절(우리말 번역은 13절)에도 언급되는 זֶרֶם הָאָרֶץ의 번역은 어렵다. 이것은 칠십인역을 따라 ‘과일의 익음’(ὄραυότης, ripeness)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리아어 역본과 라틴어 번역을 따라 ‘짐승’(whjw; animalia)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는 문맥상 ‘과일의 익음’으로 보기는 어렵고, 들의 짐승 혹은 개체나무의 제안을 따라 ‘곤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에 관해, Wilhelm Gesenius, *유폴*, 299를 참고하라.



신아시리아의 원형인장에 새겨진 타조와 염소를 길들이고 있는 '동물들의 주'에 대한 표현

모습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러한 일련의 서술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권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폭넓게 분포되어 있던 '동물의 주'(Herr der Tiere)²⁹⁾ 모티브와 연관된다. '동물의 주' 모티브는 문장(紋章)학적(heraldic) 형식의 한 형식³⁰⁾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형식은 중앙에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와 그 존재의 양쪽에 서있는 동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의 존재는 그 동물의 목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움켜잡고 있다.³¹⁾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위의 그림³²⁾을 룩스(Rüdiger Lux)는 욥기 38장 39절 이하에 서술되는 야웨의 모습과 연관 짓는다.

그러나 욥기 38장 39절 이하에서 야웨가 동물을 대하는 모습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

29) 동물의 주(Herr der Tiere)의 모티브가 이스라엘의 주변 문화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을 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 Ute Neumann-Gorsolke, *Wer ist der »Herr der Tiere? Eine hermeneutische Problemanzeige* (BThSt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2), 9-95, 특히 92-95와 최근의 연구인 Chol-Gu Kang, *Behemot und Leviathan: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von Hiob 38,1-42,6* (Diss.; Tübingen University, 2013), 98-118을 참고하라.

30) 문장학은 방패의 문양 혹은 문장(heraldic emblem)을 그리고 장식하는 하나의 예술 혹은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31) Ute Neumann-Gorsolke, *위글*, 92.

32) 그림의 출처: 루디거 룩스, *위글*, 184.

הַתְּצֹדֵד לְלִבֵּי טָרֵף וְתַתְּ כַּפְּיָרִים תִּמְלֵא

(하타추드 러라비 타레프 버하야트 커피림 터말레)

네가 사자를 위해 먹잇감을 사냥하겠느냐? 그리고 젊은 사자들의 식욕³³⁾을 채우겠느냐?

욥기 38장 39절 이하에서 인간(욥)을 향해 던지는 반어적 질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보다는 오히려 '동물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하나님은 사자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고,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향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산 염소가 새끼를 치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새끼가 성장하고 어미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들나귀에게 자유로움(39:5a)을 허락하고, 들소에게 센 힘(39:11a)을, 타조에게 몸을 떨쳐 빠르게 뛰는 재주(39:18a)를, 그리고 말에게 위엄스러움(39:20b)과 매에게 지혜(39:26b)를 그리고 독수리에게 높은 곳(39:27a)을 허락한다. 이 표현들 속에서 동물은 놀랍게도 인간과 인간 세계의 통제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인간을 비웃고(39:7a, קִנְיָהּ 이스하크), 우습게 여긴다(39:18b, קִנְיָהּ 티스하크).³⁴⁾ 이 마지막 관점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33) '먹잇감을 삼키려는 욕구'를 뜻함.

34) 슈로어(S. Schroer)는 이러한 동물의 삶을, "어떤 목적이 지배하지 않는, 인간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삶" (ein unverzwecktes, nicht am Profit der Menschen orientiertes Leben)으로 규정한다. 이에 관해, Silvia Schroer, *위글* (2010), 48을 참고하라.

3) 인간의 경쟁 상대로서의 동물: 이사야 13장 20-22절; 23장 13절; 34장 8-17절; 예레미야 50장 39절; 호세아 2장 14절

인간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동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예언서에서의 몇몇 서술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모스 7장 1-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뚜기는 인간에게 '양식의 경쟁자'³⁵⁾이며,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 뤼터스뵈르덴(Udo Rterswrdn)은 민수기 13장 32b절에 언급되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אֶרֶץ אֲכָלָהּ וְשָׁבְתָהּ הוּא)에 레츠 오켈레트 요슈베하 히)을 '사람에게 적대적인 땅'(ein menschenfeindliches [Land])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어 비어 있는 땅'(ein menschenleeres Land)³⁶⁾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이 없는 빈 땅은 야생 동물이 차지하는 서식지가 되고, 그 동물은 곧 인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상대가 된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מִשָּׁא בָבֶל) 맞싸 바벨)을 기록하고 있다. 9a절은 특히 바벨론을 심판할 '야웨의 날'(יְמֵי יְהוָה)을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בַּיּוֹם אֲכַזְרִי וְעִבְרָה וְחָרֹן אַף) 바 아크자리 베에브라 바하론 아프)³⁷⁾로 규정하고, 그 날이 임하는 결과를 9b절에서 '그 땅이 황폐함 가운데 처하게 함'(לְשֹׁמְרוֹת הָאָרֶץ לְשֹׁמְרוֹת) 라쉴 하아레츠 러삼마) 그리고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으로부터 진멸하여 없애기 위함'(לְשֹׁמְרוֹת הָאָרֶץ לְשֹׁמְרוֹת) 하타에하 야쉬미드 밈멘나)이라고 말한다. 그 심판의 결과는 20a절과 21-22절의 대비를 통해 특징적으로 표현되는데,

35) Udo Rterswrdn, *dominium terrae: Studien zur Genese einer alttestamentlichen Vorstellung* (BZAW 215;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9.

36) 뤼글, 3.

37)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야웨의 날' ~하는 날'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완료로도 볼 수 있고, 분사로 볼 수 있는 **אָכַזְרִי**는 그(야웨)가 '잔혹함'(אָכַזְרִי) 형용사이면서 부사적으로 사용되어, 잔혹하게)과 '분노'(עִבְרָה) 그리고 '진노의 이글거림'(חָרֹן אַף)을 그 날에 동반하고 오심을 표현하고 있다.

곧 '인간 거주민이 물러감'과 '동물이 그 곳(אֶרֶץ)을 대신 차지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동물은 들짐승(חַיִּים 치이임), 광야에서 울부짖는 동물(אֲחִים 오힘), 타조(עֲנָוֹת 베노트 야아나), 들양(שְׂעִירִים 썬이림), 승냥이(אֲיִים 이이임), 들개(תַּנִּים 탄님)로 다양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세계와 동떨어져 서식하는 야생적 동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에서 동물은 심판을 통해 인간이 물러간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또한 이사야 23장 13절도 동일한 그림을 소개한다.

הֲיָהָה לֹא הָעָם הָזֶה אֶרֶץ כְּשָׂדִים הָאֵלֶּם לֹא הָיָה (헨 에레츠 카쓰딤 제 하암 로 하야)

보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것은 곧 백성이 없는 땅!

אֲשׁוּרֵי יִשְׂרָאֵל אֲשׁוּרֵי יִשְׂרָאֵל (앗슈르 예사다흐 리치이임)

앗슈르인들이 그것(땅)을 들짐승들에게 배정하였다.

여기서 백성이 없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된 땅의 상태를 13장 9b절과 같이 '돌무더기만 쌓인 황폐함'(מִשְׁמַח לְמַפְלָה) 사마흐 리말펠라)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8-17절도 사람이 그 땅에서 부재함(10b, 12절)으로 인해 그 땅이 다양한 동물이 사는 동물원과 같은 땅이 됨을 보여 준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가시나무, 영경귀, 새풀),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숫염소, 올빼미, 독사³⁸⁾, 솔개가 이 땅을 그들의 쉼과 번식의 낙원으로 삼아 살아간다.

심판과 관련하여 땅에서 사람을 내쫓고, 대신 동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함은 이스라엘 자신을 향해 적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압제자에게 적용되기도 한다. 예레미야 50장

38) 히브리어 **דָּבָר**는 비록 확실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단어이지만, 우리말 번역의 '부엉이'보다는 '독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에 관해, Wilhelm Gesenius, 뤼글, 1179를 참고하라.

39절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땅을 사막의 들짐승과 송냥이 그리고 타조에게 돌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호세아 2장 14-15절은 황폐해져서 거친 들이 된 땅을 야웨가 다시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고 있다.

예언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위의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과 동물은 땅이라는 삶의 터전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하는 존재이다. 더구나 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나님 앞에 서있는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존재이며, 경쟁 상대임을 알 수 있다.

4)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동물: 욥기 12장 7절; 잠언 6장 6-8절; 이사야 1장 3절; 예레미야 8장 7절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할 때에 욥기 12장 7절에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던지는 반어적 질문은 동물을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 흥미롭다. 욥의 말의 전후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표면적으로 욥은 친구들로 하여금 동물에게, 새에게 질문을 하여 배우라고 말한다.³⁹⁾

וְאֵלֶּיךָ יִשְׁאַלֵּם בְּחַמּוֹת תְּהַרְרֶךָ (버울람 서알-나 버헤모드 버토투카)

그러나 한번 물어보라, 짐승에게, 그러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וְעוֹר הַשָּׁמַיִם וְיִגְדֶּלְךָ (버오프 하사마임 버야게드-라크)

그리고 (또) 하늘의 새에게,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39) 욥기 12장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친구들로 하여금 동물들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것에 있지 않다. 동물들에게, 공중의 새에게 그리고 땅에게 물어 보라는 것은 욥의 답답함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8절은 계속해서 만약 땅에게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면, 그것이 너를 가르칠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질문과 설명의 대상은 ‘야웨의 손이 이를 행하셨음’(9b절, וְיָדַי אֲשֶׁר הָיָה בְּיָדַי כִּי אֵיךְ אֵיךְ אֲשֶׁר אֲשֶׁר אֲשֶׁר אֲשֶׁר)임을 알 수 있다. 즉 의인으로서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욥은 동물에게 물어서 확인을 얻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음’(10절)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그리고 목숨을 지닌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사람의 판단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력화될 때, 동물의 지혜는 놀랍게도 인간의 지혜와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든지, 혹은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제시된다. 욥기 12장 1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지혜가 신랄하게 비판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잠언 6장 6-8절은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로 가서 그 개미의 삶의 방식(וְעֵבֶר דֶּרֶךְ אֲנִי דֶּרֶךְ אֲנִי דֶּרֶךְ אֲנִי)과 지혜를 눈으로 보고 배워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인간 세계와 같은 조직과 관리 체계가 없으나, 여름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물이 인간이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는 본문은 이사야 1장 3절과 예레미야 8장 7절이 있다. 여기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 제시되는 동물은 소, 나귀,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이다.

종합하면, 인간은 동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하는 존재이다.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단순한 종속 관계라면 이 구도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구약의 서술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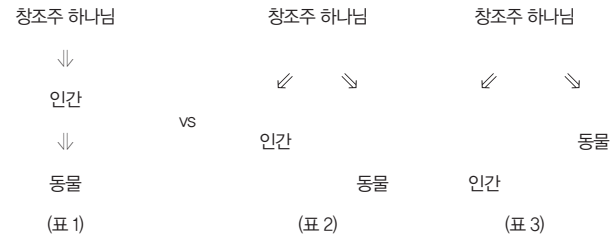
5) 신학적 동물학

창조 세계에서 동물이 인간과 가지는 관계성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지배권’(dominium terrae)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으로 성립된 구도는 하나님, 인간, 동물의 수직적 종속 관계(표 1)로 대표된다. 그리고 동물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위한 하나의 객체일 뿐 창조 세계에서의 주체가 아니라고 여겨졌다.⁴⁰⁾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 창조에 대한 서술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창조의 구도에는 이러한 단순한 수직적 종속 관계만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옆 자리에 당당히 자리하게 하였다. 먹을 것을 공평하게 정하여 주었고, 언약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동물의 주로서, 그들을 보살필 뿐 아니라 동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히려 인간보다 동물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각인될 뿐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자세의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이 의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지배권’(dominium terrae)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⁴¹⁾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심판의 맥락에서 인간을 내쫓고 그 땅을 동물이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의 편에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동물은 인간 세계를 비웃기까지 한다. 지혜문학에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무엇인가 교훈을 얻어야 함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학적 동물학에서 추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동물의 관계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점으로 그 밑에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동등한 관계성을 가지고 종속되어 있는 두 종류의 구도(표

2, 3)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피조물로서 동등한 관계성을 갖는 두 구도는 좀 더 세분하여, 인간에게 약간의 우위를 두는 구도(표 2)와 동물에게 약간의 우위를 두는 구도(표 3)로 나눌 수 있다.



3. 나가는 말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관심과 목표는 결코 학문적인 논의에만 있지 않다. 오늘날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신학적 논의에까지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본래 창조의 질서에 속한 동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무리하게 주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며, 또 한낱 동물은 인간 지배의 대상일 뿐이며, 일방적인 희생의 대상일 뿐이라는 선입견을 수정해야 한다. 동물은 단지 노획의 대상일 뿐이지 않다. 소나 양, 돼지를 거리낌 없이 잡아먹고, 또한 온갖 동물을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동물의 정당한 서식지를 고려 없이 침탈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다스림 혹은 지배하에 동물을 두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시각은 이제 바로 수정되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로 잡는 일은 먼저 종교적인 맹신에서 비롯되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과 거기서 비롯되는 위험성을 해결할 길을 여는 것이며, 미래

40) Jakob Wöhrle, *위글*, 171-172.

41) *위글*, 175. 뵘알레(J. Wöhrle)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인간의 상을 “마치 동물을 보살피는 행위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wie ein Hirte zum fürsorglichen Handeln an den Tieren aufgerufen)으로 보며, 그것은 “동물을 초장으로 이끄는 또는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두는 것에(im Führen der Tiere zur Weide oder in der Sicherstellung der Nahrungsgrundlage für die Tiere)” 있다고 본다.

- ments: Am Beispiel von Psalm 104”, Ders., *Schöpfung und Lebenswelt: Studien zur Theologie und Anthropologie des Altes Testaments* (Marburger Theologische Studien 106;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9).
- Pola, Thomas, “Was ist »Lebenim« Alten Testament”, *ZAW* 116 (2004), 251-252.
- Rterswrdn, Udo, *dominium terrae: Studien zur Genese einer alttestamentlichen Vorstellung* (BZAW 215;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3).
- Schmidt, Werner H.,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von Genesis 1,1-2,4a und 2,4b-3,24* (WMANT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7.
- Schroer, Silvia, “Du sollst dem Rind beim Dreschen das Maul nicht zubinden“ (Dtn 25,4): Alttestamentliche Tierethik als Grundlage einer theologischen Zoologie,” R. Hagen-cord (ed.), *Wenn sich Tiere in der Theologie tummeln: Ansätze einer theologischen Zoologie* (Regensburg: Verlag Friedrich Pustet, 2010), 38-56.
- Schroer, Silvia, *Die Tiere in der Bibel: Eine kulturgeschichtliche Reise* (Freiburg in Breisgau/Basel/Wien: Herder, 2010).
- Westermann, Claus, *Genesis: 1. Teilband Genesis 1-11*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 Wöhrle, Jakob,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71-188.

검색어

동물의 주
 도미니움 테레
 인간 창조
 동물 창조
 신학적 동물학

Yahweh, the Ruler of Animals: A Study of a Theological Zoology

Cha-Yong Ku, Dr. theol. (Bonn University)
 Lecturer at Chongshi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rmulate a theological zoology. Theological zoology i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nimals, and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Throughout history,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has been one-sided, and thus the results are distorted. Many texts of the Old Testament imply that animals should not be only objects of exploitation for humans. This assumption is based on the two special relationships of animals with God and with huma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nimals, God is ‘Herr der Tiere.’ In the Old Testament, God is the Lord of the animals, who feeds all kinds of animals throughout the world, and raises and protects them.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humans

and animals not only relate to each other as the ruler and the ruled, respectively, but they also stand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This paper examines the texts in the Old Testament that refer to animals, especially focusing on the animals' relationships with God and with humans, its emphasis mainly lying in the analysis of the texts. The main texts that will be studied can be divided into four themes: (1) the creation of animals, together with humans, Gen 1:24-30, 2:19; (2) animals receiving God's care, Gen 6:19-22, 9:1-17, Pss 50:10f, 104:10-30, 147:9, Job 38:39ff; (3) animals as competitors of humans, Isa 13:20-22, 23:13, 34:8-17, Jer 50:39, Hos 2:14; (4) animals as good examples for humans, Job 12:7, Prov 6:6-8, Isa 1:3, Jer 8:7. The analysis of these texts will establish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animals, and between humans and animals.

Because of the sovereignty over the earth that God has granted humans ('dominium terrae'), the human-centered structure has been represented until now as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that is, God - humans - animals. However, it becomes apparent that this relationship is not the only one in the composition of the Creation. God created animals in the same way as humans and ranked both of them as equal. God fairly distributed food for both and acknowledged both as the subjects of the covenant. As 'Herr der Tiere', God takes care of animals and sometimes seems even kinder towards them than towards humans. This can be a good example for humans, as to how they should treat animals. Therein, one can discern the purpose of the 'dominium terrae.' In theological zoology one can thus add the equivalent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under the rule of the Creator to the subordinate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Moreover,

this latter relationship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wo more detailed structures, that is, the structure of human predominance and that of animal predominance.

Current discussion on theological zoology is the result of modern-day interest and commitmen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ological zoology, the notion of animals being mere subjects of sacrifice is shown to be in need of revision. Animals are also God's creatures and ought to co-exist with humans in this world.

Keywords

Herr der Tiere
dominium terrae
creation of humans
creation of animals
theological zoology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